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새로운 해가 밝았다. 하루하루가 항상 새로운 날이지만, 해가 바뀌는 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오랜 세월 인류가 '시간'과 함께 해 온 까닭이다. 이렇게 새로운 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하거나 소망을 품는다. 결심이든 소망이든 결론은 모두 같은 지점을 향한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변화이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없을 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의 영역이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라면, 절망하는 수밖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에도 인간은 꿈을 꾸고, 노래하

“때는 와요”

고,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기다림이야말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니었을까.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가나긴 기다림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다림은 포기나 판단 중지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직면을 뜻하며 나아가 내일을 모색하는 일이다.

현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강한 비바람으로 흔들거나 적신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다. 기다림은 단단해지는 일이다.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야 한다. 단단함은 두껍고 튼튼한 껍데기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층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 낸 결과이다. 기다림이 단단함을 만들어 낸다.

가다림은 태도의 문제이다. 단순히 결심한다고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망한다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다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과 맞닿아 있다. 태도는 그 일상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결국 개인은 어떤 목표에 한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살아가고, 어느 순간 목표에 이르게

된다. 공동체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태도가 중요한 이유이다.

자칫 태도를 예이나 싸가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타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태도는 존중이자 배려이다. 어떤 태도를 갖겠다, 혹은 유지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결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치 등을 무시하지 않는 자세이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태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폭력을 거부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모든 폭력은 위계적이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 이와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서로를 바라보게 한다. 태도는 오히려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며, 나와 너가 만나는 그 사이와 경계에서 드러난다.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때를 기다린다. 자신의 때, 공동체의 때, 인류의 때를 생각하고 기다린다. 때는 올 것인가. 지난해 50주기를 맞

은 신동엽 시인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좋은 언어'라는 시에서 '때는 와요'라고 말한다.

“외치지 마세요/ 바람만 제티처럼 날려가 버려요./ 조용히/ 필수복 당신의 자리를/ 아래로 낮추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모여들 와도// 하거든 바닥에서부터/ 가슴으로 머리로/ 속속들이 굽어들아 적셔 보세요./// 하질것없는 일로 지난날/ 언어들을 고되게/ 부러만 먹었군요.///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시인은 '때는 온다'거나 '때는 올 것'이다 라는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때는 와요'라고 슬며시 말을 내려놓는다. 외치지 말고, 자리를 낮추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심지어 '그때까진 이 세상을 좋은 언어로 채우자'고 한다. '때는 와요'라는 속삭임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이다. 비난과 저주의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좋은 언어'로 채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단단해져야 한다. 나와 너,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한 해를 소망한다. "어려분, 때는 와요."

종교칼럼

킬로만자로의 '그' 표범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가서 보면 별 것 아닌 것을 그때는 왜 그리 가고 싶었는지...' 노년을 바라보는 한 신사의 뒷두리였다. 드라마에서 본 이 대사가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행복한 축에 속한다.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그저 부러운 뒷두리일 뿐이다. 가보지도 못한 이들은 대개 이렇다. 좋은 직장에 맘 편하게 다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먹고 사는 걱정일랑 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

바라는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가보겠다고 생각만 하고 발도 내디뎌 보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결심과 바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처음의 열정이 사그라져서, 혹은 거기 가야 할 절실함이 식어 들린 발걸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기'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느낌이 드는 것과 '여기'가 싫어서 여기가 아닌 다른 '저기' 중의 한 곳으로 가는 것은 분명 다르다. 킬로만자로의 표범은 21세기가 자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저기' 21세기로 가노라고 말한다. 눈 덮인 킬로만자로에서 홀로 하얗게 얼어 버리고 있지만, 바로 '21세기'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고독한 정사에서 홀로 죽을 수 없는 것이 '그' 표범의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왜 홀로 정상까지 올라가 거기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지, '21세기'는 왜 그토록 그를 간절히 원하는지 눈 덮인 정상에 홀로 서보지 못한 날씨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고독과 싸우며 홀로 정상에 섰을 때만 '21세기'가 눈에 들어오리라.

노년의 신사는 눈 덮인 정장에서 열대의 평원을 바라보다가, '내가 왜 여길 올라왔는가...' 혼자 뒷두리하고, 표범은 '21세기'가 원하니 여기 올라야 이렇게 있노라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 '저기'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록 하려면 먼저 내가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고.

그러나 계속 같은 의문이 생가의 꼬리를 잡는다. 왜 원해야 하나? 그냥 그렇게 '21세기'가 있는지도, 눈 덮인 정상이 있는지도 모른 채, 평원의 한 마리 짐승으로 살다 죽는 것은 왜 안 된단 말인가? 어쩌면 존재함의 숙명(宿命)에 대한 반역일지도 모를 이런 의문이 부지불식간에 불쑥 떠오른다.

이 의문의 밑바닥에는 지겹고 단조롭지만 한편으론 편안하고 안정된 현실에 대한 애증(愛憎)이 자리 잡고 있다. 현실의 단조로움과 권태는 짜증과 증오를 불러일으키지만, 그 편안함과 안정됨에 대한 애착은 증오를 녹일 만큼 강하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갈등에 적당히 지칠 즈음 눈앞에 '거기'가 드러나 보이고 '거기'에 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현실의 모든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가는 도중도 아니며, 현실에서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산 중턱을 헤매다 굽어 죽은 하이어나에게 의문은 치열하지 못했고 능력은 미흡했다. 신은 인간에게 의문을 던질 자유를 주었지만 그 의문을 풀 능력까지 모두 준 것은 아니다. 신은 인간에게 '저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주었지만, '저기'에 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지는 않았다. 욕망은 자유지만 현실은 능력을 원한다. 능력은 순전히 인간의 몫이다.

어떤 이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열렁뿔렁 망 보낸 지난 1년을 후회한다. 어떤 이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오는 것이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지난해 하지 못한 것보다 했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가슴 뿌듯해한다.

이 세상 모든 것 힘들이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힘들여 하든지, 아니면 '저기'를 원하지 않든지. 힘들여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킬로만자로의 표범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21세기'에 들어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 표범은 어떻게 되었을까...

社說

변수 많은 총선 판단 기준은 결국 '인물'이다

새해 벽두부터,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각 정당들이 사활을 건 승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아 정당은 물론 유권자 입장에서 도 판세를 읽기가 쉽지 않다. 우선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정당 투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취약한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이 정당 투표를 노리고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이 낮아진 점도 변수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광주-전남 지역 새내기 유권자는 4만4000여 명인데,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선 다선 현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인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대교체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관심사

다.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지지율이 절반(한신협 여론조사 53.7%)을 넘는 만큼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것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이끌었던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 선언이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 힘들다. 당시 안철수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광주-전남 지역구 18곳 가운데 16석을 석권했다. 안 의원이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지 독자 신당을 창당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제3지대 신당을 모색해 온 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에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변수가 많은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변수가 많을수록 본질을 들여다보는 혜안을 키워야 한다. 본질은 민주주의의 심장 역할을 해 온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부터 미래를 견인할 인물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보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봐주기 아닌가

지난해 30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난 포스코 광양제철에 사실상 면죄부가 내려져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건을 내부 증결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도 '없던 일'이 됐다.

전남도 판단의 근거는 환경부-민관협외체 등의 결론으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내부 증결 조건으로 기술 개발, 공정 개선, 시설투자 계획 준수 등을 내걸었다. 문제의 블리더는 제철소 용광로 굴뚝에 설치돼 공정이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 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영산강 환경청과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제철소 측이 지난 1987년 이래 30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 장치 없이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약속만으로 사안을 종결하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타 지역의 유사 사례와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단행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과 노동자 건강보다 기업의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환경 당국은 국민 환경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을 슬며시 덮어서 안 될 것이다. 환경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 의지 없이 주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허언일 뿐이다.

無等鼓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한두 가지 목표나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꼭 이루거나 지켜야겠다고 철석같이 마음먹는데도, 며칠 못 가 포기하기 십상이다.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사흘 만에 흐지부지되는 상태를 꼬집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연초에 자주 쓰이는 이유일 게다. 작심삼일은 일반적으로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으로도 이용된다.

간혹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삼일 동안 생각하고 굳게 결심하라'는 신중성과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표현으로도 이용된다. 후자

작심삼일

의 의미일 때, 어울리는 철학자를 꼽으라면 칸트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서양철학이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한 시간 관리와 신중성으로 더 유명한 그가 바로 칸트다.

칸트는 스물두 살 때 "나는 이미 진로를 선택했고 이 길을 평생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진로로 들어설 것이며 아무도 이 길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할 바 있다. 이후 55년이 지난 1781

년 선일곱 살 때 '순수이성비판'을 완성해 철학계를 뒤집어 놓았다. 15년 동안 시간강사를 하고, 마흔여섯 살이 돼서야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 오랜 기간 무명 세월을 보내는 등 난관이 많았지만 마음먹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철저하고 신중한 성격 탓에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칸트의 웃지 못할 일화도 전해 온다. 왜소한 데다 보잘것없는 용모인 그에게 어떤 여인이 청혼을 했다.

칸트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할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였던 것이다. 칸트는 결혼하면 좋은 이유를 찾는데 무려 7년을 허비했다.

새해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 세운 신년 계획이라면 '못 지킬 것'을 미리 격정하지는 말자. 금연이든, 운동이든, 저축이든, 올해도 자신을 믿고 힘차게 추진해 보자. /채희종 사회부장chae@

기고

광주YMCA 100주년을 맞으며



표경식  
광주YMCA0이사장

지난해 10월 양림동에 '오방 최홍종 선생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을 앞둔 광주YMCA의 속연에 광주 지역 사회의 힘이 모아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광주는 다시 오방 최홍종이라는 스승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주 정신은 5·18 정신입니다. 광주는 40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폭력과 탄압과 학살에 굴하지 않고 처절한 저항을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대동 세상을 위한 '자기를 버리는' 저항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공동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을 유지시켜주는 '정신'이 없다면 말초적인 욕망과 눈앞의 이익이 모든

가치를 대신합니다. 결국 각자도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40년 전 피 흘렸던 5·18 영령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5·18의 저항은 광주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주 정신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바로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방 최홍종 선생(혹은 목사)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5·18로 극명하게 드러난 정의와 평화와 민주주의와 대동 세상을 꿈꾸는 광주 정신은 100년 전 화광동진(和光同進)의 삶을 살았던 최홍종의 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화기광동기진'(和其光同其塵), 줄여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말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빛을 부드럽게(조화롭게)하여 티끌과 하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이 구절을 '뭔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속의 티끌과 하나 된다' 정도로 새깁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누구는 높고 고귀하

며 누구는 낮고 저속하다는 이분법에 기반을 둔 해석이기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입니다. 마치 5·18때 스러져갔던 모든 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현혈을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시장통에서 주먹밥을 빚었던 모든 사람이 각자 찬란한 빛이였듯이 말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빛임을 자각한 사람이 있고 아직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방 최홍종의 정신, 즉 화광동진의 정신은 모든 사람 각자가 빛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이미 빛인 사람들이 티끌과 먼지처럼 스스로를 버려 타인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오방은 빛인 내가 스스로를 내려놓아 모두를 빛나게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오방 최홍종의 삶은 바로 그런 화광동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구현했습니다. 오방 최홍종의 정신, 즉 화광동진의 정신으로 설립하여 100년을 맞는 광주YMCA를 돌아 보며 성찰합니

다. 훌륭한 선조를 가졌으나 그 정신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후손들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늘 화광동진의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100주년을 맞으면서 광주YMCA는 광주에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봅니다. 단지 오랜 기간 존속해온 약간의 덩치가 큰 시민단체의 하나뿐일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주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없는 세상,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화광동진이라는 광주 정신과 오방 최홍종이라는 스승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광주YMCA는 새해를 맞으며 앞으로 100년, 화광동진의 정신으로 광주 속에서 다시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우리의 100년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